

1년 동안 달려온 연중 공연 ‘마지막 무대’

-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26일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 전통문화관 토요일 공연**
24일 '흑운 박차고 백운 무릅쓰고'
- 문화예술협회**
26일 '로맨틱 파티'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상설 공연이 올해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 어린이를 위한 뽕만들기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지컬(옛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열린다.

'다시 시작하는 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가야금 주자 정혜심씨가 초대 손님으로 참여한다.

퓨전 밴드 '그림(The 林)'의 가야금 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씨는 이번 공연에서 가사문학 7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정철의 '송강별곡'(백창우 곡)을 가야금 연주와 노래로 들려준다.

강위원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에서는 또 김원중과 느티나무밴드(정은주, 조성우, 박우진, 송기정), 샌드애니메이션 화가 주홍, 우물안 개구리(봉봉, 라페양, 소길) 등이 출연한다.

한편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은 올 수익금 857만원을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북녘어린이영양양공정 사업본부에 기부한다. 2003년부터 시작된 달거리 공연 팀은 지금까지 1억 300여만원을 기부했다. 입장료는 따로 없으며 공연 관람 후 성의를 담아 로비에 마련된 모금함에 넣으면 된다.

문의 010-3670-5802. www.kimwon-joong.com.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문화관도 올해 마지막 토요일 공연을 진행한다. 24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소리아가무악(대표 표윤미)이 '흑운 박차고, 백운 무릅쓰고' 공연을 선보인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올해 토요일 공연을 사랑해준 관객들이 함께 다과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깜짝 선물도 증정한다.

'흑운(黑雲) 박차고, 백운(白雲) 무릅쓰고'는 판소리 흥보가 중 흥보에게 은혜를 입은 제비가 강남에 갔다가 이듬해 봄에 선물을 안고 다시 흥보네 집으로 날아오는 여정을 주제로 한 소리 대목이다.

이날 공연은 임교민 씨가 작곡한 단가 '광대합음'으로 첫 막을 울리며 이어 제비노정기 '흑운 박차고, 백운 무릅쓰고' 대목을 표윤미 명창과 단원 2명이 가야금명창으로 들려준다. 최치용, 안지영은 김일규 아쟁산조와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을 입체적으로 들려주고, 김서현 외 4명이 한국창작무용 '플라타너스'를 선보인다. 이어 아리랑을 바탕으로 희망을 담은 창작국악가요 '아리요'와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진다.

토요일 공연은 지난 2012년 개관 때부터 진행돼 오고 있으며, 올해는 47회 공연에 1만여 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문의 062-232-1595.

적수 달 마지막 주 월요일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음악회'를 열고 있는 (사)문화예술협회도 올 마지막 행사를 준비했다.

40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서구 풍암동 카페 싸목싸목 다목적실에서 '로맨틱 파티'를 주제로 열린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씨가 클라이슬의 '사랑의 슬픔'과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들려주며 클래식 기타 연주자 서만재씨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전통문화관 토요일 공연

와 토키도 준코가 클로드 미셀 헨베르크의 '첫 발자국'을 연주한다. 이어 테너 이상화 씨가 이수인 곡 '내 남에 갈뉘'를, 소프라노 김은혜씨가 김동진 곡 '가고파'를 들려준다. 문의 062-384-20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마도해역에서 발견된 쇠술 '철구' (왼쪽)와 '철부'. <문화재청 제공>

옛 뱃사람 셰프들의 '술'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년 1월22일까지 전시

옛 뱃사람들이 선상에서 요리를 했던 술이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된다.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기념해 '술, 선상(船上)의 셰프' 기획전을 2017년 1월 22일까지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연다.

이번 전시는 침몰선에서 발굴돼 보존처리로 원형을 되찾은 술을 주제로 한다. 시대별로 술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어떻게 사용됐는지, 또 어떤 상태로 인양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술 1점, 고려시대 술 6점, 조선시대 술 2점 등 술 9점과 도기 시루 1점을 선보인다.

특히, 고려시대 배에서 인양한 다리 가셋 달린 술(철정·鐵鼎)과 다리가 없는 술(철부·鐵釜)을 함께 전시해 눈길

을 끈다. 철정은 오늘날 냄비와 같은 용도로, 철부는 시루와 함께 밥을 찌거나 많은 양의 국이나 죽을 요리하는 용도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술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조리 용기이다. 특히 쇠로 만든 쇠술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고려 시대부터는 일상화됐다. 쇠물을 부어 만든 술은 특성상 당대에는 귀한 생활용품으로 취급됐으며, 폐기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깨지고 부스러지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출토 수량이 많지 않다.

지금까지 바다에 침몰된 통일신라~조선시대 배에서 적게는 2점, 많게는 10점 이상의 술들이 발견되면서 30점 이상 인양됐다. 대부분 뱃사람들의 먹거리를 만들 때 사용됐고, 일부는 화물로 적재돼 운송되던 것이다.

문의 061-270-204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분리된 가족의 슬픔... 이해원 시인 '일곱 명의 엄마'

'시산맥' 공모 당선 시집

11회 시산맥 기획시산 공모 당선시집인 이해원 시인의 '일곱 명의 엄마' (시산맥)가 발간됐다.

모두 50여 편의 시가 수록된 작품집에는 '부레옥잠', '연근 날다', '궤도 이탈', '달팽이에게 물주기', '모래 화공', 등 주옥같은 작품이 실려 있다. 이들의 시는 공통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로 수렴되는 특징을 보인다.

"...엄마가 병원 가고 없으면 나는 집이 무서웠다 동생한테 엄마가 네 명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집에 유치원에 이마트에 그리고 피자집에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생은 엄마가 세 명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후략)"

표제시 '일곱 명의 엄마'는 가족과 분리된 이들의 슬픔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인은 엄마의 부재를 매개로 남은 자와 떠난 자들의 관계를 깊

은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아이에게 엄마의 존재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다. 이처럼 시들은 상항적인 맥락이 파생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간결한 어조로 형상화돼 있다.

마경덕 시인은 해설에서 "우리는 불행을 예측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흘러간 추억을 불러오려면 그 자리를 찾아가거나 비슷한 풍경이나 배경을 값으로 사기도 한다. 하지만 복구가 되지 않는 불행도 있다"며 "독자는 동심의 해맑음을 통해 '그리움의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고 평한다.

한편 이 시인은 2012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으며 2015년 아르고문학창작기금을 받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정농단·민주주의 위기... ‘5월학’을 이야기 하자”

'문학들'겨울호 특집

1980년 5월을 돌아보고 '5월학'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눈길을 끈다.

광주에서 발행되는 종합문예지 '문학들'겨울호(통권 46호)는 특집으로 '광주학(오월학)의 가능성을 묻는다'를 다뤘다.

사실 5월 광주를 많이 말해져 왔으며 일회성과 즉흥성, 열정과 용기가 혼재돼 있어 하나의 학문적 가능성으로 진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많은 이들이 5월의 객관적 자료와 숫자 등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자료와 숫자만으로는 광주의 5월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5월 광주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진행형'이라는 말은 다양한 접근과 해석 그리고 질문이 가능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5월학'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최정운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5·18 정신'을 다시 찾아본다'에서 "5·18 정신"을 되새긴다는 것은 5·18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인의 마음으로 기억을 더듬어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생

각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5·18 정신"이란 5·18이라는 사건을 역사에 남기면서도 그때의 기억, 우리가 써왔던 순수하고 진정한 마음의 동기를 기억을 통해 다시 되새기며, 현실 속에서 이상을 늘 새롭게 뒤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우근 광주대 신방과 교수는 '지금, 우리의 5·18에서' "시민 정치교육으로서 5·18교육의 목표는 복합수용소 사회에서의 인간해방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인간성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악(국가폭력)의 구조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은 교수는 작금의 시국과 관련해 "우리는 최근 헬조선에서 부패특권계급의 인격장애를 목도하고 있다. 박근혜와 그 주변 부패특권세력의 인격은 전체주의적 인간형을 보여준다. 이들은 도덕의식이 없는 소외오패스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학들'은 '장소' '들'에서 오는 시인의 '나를 좀 더 생생하게 만들어 주는 시 공간-신촌 기억' 맞으면 카페 파스텔'을 주제로 단상을 풀어내고 '이야기' '들'에서는 구술기록노동자 서중원씨가 '이 부부가 사는 밤'을 이야기한다.

이밖에 안성호·차노희·최정화 작가의 소설과 구현우·김완·박두규 시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당신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실버벨

Silver Bells

12월, 전국 극장 대개봉

철없는 아버지와 철든 아들의 좌충우돌 크리스마스가 온다!

● 관람문의 | 광주 CBS (062-376-8500)